

A Study on the Analysis of Dental Spatial Composition through Michell Foucault's 'Spatialization of Disease'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미셸 푸코의 '질병의 공간화' 개념을 이용한 치의공간구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Jeong, Taejong* 정태종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Michell Foucault's th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spatialization of disease and spatial composition for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planning of the healthcare architecture. **Methods:** Literature review of spatialization of disease and comparison between medical and dental disease have been conducted. The synchronic structure and diachronic change of spatialization proces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patial composition and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in three points. First of all,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is similar to that of medicine but it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tertiary spatialization. The second one is that the process of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started the secondary spatialization first and the primary spatialization followed after a short interval and spatial composition has been followed the process of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in Korea. The third one is that the tertiary spatialization has not been actively gone along until recently and it has to be developed in near future.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analyze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in other dental facilities to develop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composition and program in healthcare system.

Keywords: Michell Foucault, Spatialization of Disease, Architectural Spatial Composition, Dental Hospital, Healthcare System

주 제 어: 미셸 푸코, 질병의 공간화, 건축공간구성, 치과병원, 의료체계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ive

인류의 질병에 대한 적응과 대응은 고대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서양에서 질병에 대한 근대의학으로의 발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사회적 변화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접근의 의학적 시선이 등장하

면서 시작되었다. 푸코는 의학의 변화가 사회의 필요에 따른다는 기능주의나 사회발전의 결과로 보는 인과적 관점으로 설명하였던 기존의 의학 연구에서 벗어나 질병이 개인의 육체에 자리를 잡지만 질병의 공간은 인식의 틀에 따라 다양하며 질병이 인식되는 의학적,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나타나는 공간을 질병의 공간화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서양 의학의 변화에 따라 질병이 1차, 2차, 3차 공간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질병의 다양한 층위를 분석하였다(Foucault, 1963: 49).

의료분야에서 건강과 질병의 개념도 사회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면서 환자 개인의 몸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

* Member, 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mary author, Corresponding author: tjlvbs@snu.ac.kr)

됐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의 관심이 증대되고 공간 이동이 증가하여 질병의 파급력과 다양성이 커졌기 때문에 질병의 관리와 대처에는 의학적 지식 이외 질병의 인식에 관한 인문학적 틀을 적용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Lee et al. 2015: 67-68).

최근에는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같은 급성 전염성 질병이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만성적 질병으로 지역사회의 주요한 진료대상이 되는 것이 치과 질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능에 의한 의료공간의 건축계획적 분류 및 분석이 아닌 질병과 인간과 사회의 관계인 질병의 공간화에 대한 과정 중 치과 분야에서 보이는 질병의 공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의과와 치과에서 질병의 공간화 특징들을 살펴보고, 한국 내 치과 분야의 대표적인 교육 및 임상 공간인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의 공간구성 현황과 변화과정 분석을 통하여 한국 내 치과 질병의 공간화 과정과 건축공간과의 상관관계 등 치과 분야 건축공간에 대한 건축 계획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Methods of Research

연구의 첫 단계에서 질병의 공간화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각 공간화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치과 분야에서 질병의 공간화를 의과 분야 공간화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치과 분야 질병의 공간화의 공시적, 통시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 치과 분야의 주요공간인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의 현황과 1890년대 말 미국과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발전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 질병의 공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 내 치과 분야 1차, 2차, 3차 질병의 공간화 과정을 건축공간구성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2. Michell Foucault's Spatialization of Disease

2.1 Concept of Spatialization of Disease

푸코는 1963년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사람들이 질병을 포함한 공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인식하며 각각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질병은 의학적이며 사회적인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질병의 1차 공간화는 의학 또는 병리학 속의 질병의 분류공간이고 2차 공간화는 실제 질병이 표현되는 환자의 몸에 자리 잡은 공간이며 3차 공간화는 질병이 존재하는 지역과 사회집단의 공간이다¹⁾.

1) Foucault, Michell, Paul.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p.49-55

질병의 1차 공간화는 질병의 고유한 본질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며 증상과 의학자의 경험에 따른 유사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분류의학으로 서유럽에서는 17세기 중반 고전 시대에 생물학의 방법론인 분류학의 발전이 타 학문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차 공간화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위치 정하기이며 점차 확대되고 발전하여서 기초의학으로 현대의학의 과학적 방법의 근간이 되었다. 질병의 분류학은 질병의 검사와 진단과정의 결과이며 현재 한국은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질병의 2차 공간화는 의학적 지식체계이며 시각적, 공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1차 공간화와 다르게, 실제 임상 진료에서 나타나는 환자 신체 속의 질병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질병은 환자의 몸에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과 징후이며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개별성과 발현의 다양성, 그리고 의사의 임상적 시선과 기술적 검사를 통한 진단의 실증적 증명 이 필요하다.

질병의 3차 공간화는 환자의 몸이라는 미시적인 공간인 질병의 2차 공간화와 비교하면 환자와 질병을 포함하는 집단 사회와 지역의 거시적 공간이다. 이는 환자의 개별성에 기초하는 2차 공간화가 전염병과 같이 개인의 몸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경우이며 격리나 사회정책을 통한 위생환경의 결정 등이 포함되므로 주로 국가나 정부가 질병을 다루는 의료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다. 이러한 사례로 2015년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의 수월함과 입원환자의 간호를 보호자나 방문객에 의존하는 등 한국 의료 사회 구조와 진료문화의 문제가 노출되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atialization of Diseases by Michell Foucault

Primary Spatialization	Secondary Spatialization	Tertiary Spatialization
Classic, Mid 17C	Modern, 19C	Modern, 19C
Taxonomy	Clinical View	Community
Ideal Position	Body of Patient	Contagious Disease
Home	Clinic	Social Environment
Bedside Medicine	Clinical Medicine	Hygienic Medicine
Fundamental knowledge	Laboratory Medicine	Health Policy
Internal Medicine	Surgery	Preventive Medicine
Disease in the Discipline	Disease in the Body	Disease in the Community
Researcher	Doctor	Administrator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의학의 발전과정에 따라 병원의 공간체계도 변화하게 되는데, 병원 공간변화의 특징인 진료공간으로서의 병원의 출현은 근대 의학과 같이한다. 그리스 사회의 의료제도나 로마 시대의 공공병원,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수도원이나 도서관의 의료시설로의 역할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격리와 분리의 공간이었다. 의학의 변화를 병원 공간과 비교해 보면 1차 공간화인 지식체계의 분류로 인하여 검사 및 실험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19세기 병원은 분류체계 자체가 병원 건물이라고 할 정도로 분류학과 공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근대병원의 2차 공간화와 의료공간의 분화는 전문화된 진료 및 간호에 따른 병동부의 분화와 성별, 경제적 지위, 질병에 따른 병원 공간 분류 및 공간체계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별에서 질병으로 변화하는 것과 기단형이나 독립형 병원으로의 변화와 연관된다. 또한, 전문가주의인 의사들은 질병의 1차, 2차, 3차 공간화를 통하여 각 공간 속의 질병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환자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호 연관 및 영향을 통하여 기초의학자, 의사, 행정가 등 질병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형성 및 시각 권력이 나타나게 된다.

2.2 Characteristics of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근대의학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대표적인 영역은 환자의 해부학적, 병리학적 형태를 관찰하는 임상 검사의 공간인 병원이며, 또 다른 영역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공중보건학 영역이다. 치의학의 기존연구는 기능적, 인과적 관점에 머물렀으나, 최근 푸코의 방법론인 계보학을 이용하여 구강이 가변적임을 드러내고 치의학적 규율의 발생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도와 정책을 통한 치과의 형성과 발전과는 다르게 지식과 권력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과 질병의 원인과 치의학의 대상은 환경적 요인, 사회적 접촉과 개인위생임이 밝혀졌다(Nettleton, 1992: 49-52). 치과 질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인데 이들은 외부 환경요인의 산물이며 구강에서 중요한 측면은 개인위생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본질과 가능성은 집단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인의 몸을 만들고 훈련하는 두 수준에서 작동되며, 구강보건교육, 고통과 공포, 설탕 등 세 가지 담론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s by Nettleton

Physical Space	Psychological Space	Social Space
Home	Dental Clinic	Community
Family Care	Pain and Fear	Public Health
Monitoring the Family	Monitoring the Patient	Monitoring the Community
Personal Training	Sugar Controlling	School Monitoring
Parent	Dentist	Administrator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데이비스는 치과 의료의 사회학적 재조명에서 치과는 공중 위생이나 노동위생의 대책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예방의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Davis, 1980: 74-75). 또한, 치아우식이나 치주병과 같이 만성적이고 치명적이지도 않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병은 암이나 심장병과 같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병에 비해 특별한 주목을 받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치과에 대한 특이한 이해의 구조 즉 치과의 민간문화(lay culture of dentistry)가 있으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단체집단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 신념과 행위라는 넓은 맥락이 필요하다. 즉 치과 질병은 임상 치료보다는 예방 치과와 구강 위생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환경적 관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치과 질병의 세 가지 담론은 푸코의 질병의 공간화에서 질병의 2차 공간화인 신체 해부학적 공간과 3차 공간화의 사회적 공간과 더불어 고통과 공포의 심리학적 공간이 나타나는데, 치통의 극심한 통증의 강도와 치과 치료 환경의 공포, 그리고 설탕이나 단 음식의 조절에 필요한 심리학적 상황이 공간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2.3 Comparison on Spatialization of Disease between Dental and Medical Field

치과 분야에서 질병의 공간화는 의과에서 질병의 공간화와 상당 부분에서는 유사하나 일부 분야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치과 질병의 1차 공간화는 질병의 분류체계로 의학과 동일하나 의학과 공유할 수 있는 기초학문 중 구강 임상 병리학, 조직재생, 치과 교정학의 생역학 등 일부는 치의학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치과 질병의 2차 공간화는 치과의 기원이 의학의 외과 분야이며 이로 인하여 치과 임상은 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 치료를 하는 외과와 유사하다. 그에 비해 의학은 외과적 처치 외에도 증상과 징후를 살피는 임상적 시선을 통한 진단과 처

방을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내과나 정신과적 치료 등 외과적 처치와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한 2차 공간화가 나타난다.

의학에서 질병의 3차 공간화는 개인의 몸을 벗어난 질병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문제로 주로 전염병에 관한 것이다. 전염병은 급성으로 발생하여 단기간에 막강한 영향력을 줌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치과 질병은 만성적이며 서서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료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치과 질병의 3차 공간화는 전문가와 정부의 상호협조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4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and Dental Spatial Composition

질병의 공간화는 진료공간인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연구공간, 지역사회 등 광범위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공간인 의료시설과 의학교육공간인 대학병원은 1차, 2차, 3차 질병의 공간화가 집약된 장소이다. 1차 공간화의 공간은 임상에 관련된 기초학문을 위한 연구 및 교육공간이며 2차 공간화의 공간은 환자와 의료진의 진찰 및 진료에 관한 공간이다. 의료기관에서 3차 공간화의 공간은 질병의 공공 및 사회적 확산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연구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s and Spatial Configuration

Primary Spatialization	Secondary Spatialization	Tertiary Spatialization
Taxonomy	Clinical View	Community
Research & Education	Dental Clinic	Public Health
Professor	Dentist	Administrator
School of Dentistry	Dental Hospital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3. A Case Study of Dental Spatial Composition with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in Korea

한국 치과 질병의 공간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의학의 도입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전해 온 과정을 담고 있는 공간인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의 현황과 공간변화를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로 분석하여 치과 질병의 1차, 2차, 3차 공간화를 파악하고 교육공간, 진료공간, 그리고 공공정책공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4]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s and Spatial Configu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in 2019

School of Dentistry	Dental Hospital	R&D Center and Dental Hospital
Yeongun Campus	Yeongun Campus	Kwanak Campus
Primary+Tertiary	Primary+Secondary+Tertiary	Primary+Secondary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3.1 Synchronic Structure of Spatial Composi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은 2019년 현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에 교육공간, 진료공간, 그리고 공공정책공간 등이 형성되어 있다.

교육공간인 치의학 대학원은 연건캠퍼스의 치의학 대학원 본관, 치과생체재료연구동, 교육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과 질병의 1차와 3차 공간화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치과병원은 2차 공간화가 중심이나 임상과 관련된 교육공간인 1차 공간화 공간이 지하와 최상층에 제공되며 이는 내부 교육용과 외부인의 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3차 공간화인 공공의료에 관련된 공간은 예방 및 지역사회를 위한 치과병원의 공공정책 및 공공관리와 함께 지원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 3차 공간화는 실제 임상 진료에 필요한 공간이 아니며 주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 상황을 공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치의학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 치과병원 및 첨단교육 연구복합단지를 설립하면서 현재까지 세분화, 전문화되었던 기초 및 임상 분야 치과 질병의 1차, 2차 공간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관악캠퍼스 내 첨단교육 연구복합단지는 1차와 2차 공간화 접목의 새로운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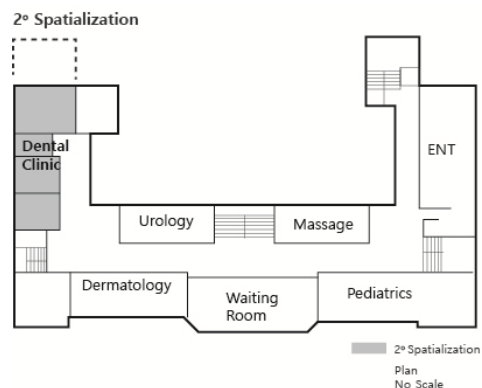
3.2 Diachronic Changes of Spatial Composi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한국 근대 치과 진료의 시초는 1885년 제중원 내 미국 선교사인 알렌이 시행한 발치 시술로 알려져 있으며 치과 진료 공간은 세브란스 병원 치과로 발전하였다. 이와는 별도의 과정으로 1922년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경성치과의학교와 부속 병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으로 합병되었다. 한국의 근대 치과 임상 공간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의 치과에서 시작하였다(Kee, 1995: 285). 이후 1946년 설립된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1978년 서울대학병원 치과진료부로, 1993년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병원으로 개편되었고, 2012년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22년 2년제의 경성치과의학교로 시작하여 1929년 4년제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59년에는 치의예과가 신설되어 6년제 학부가 되었다.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은 1969년 연건동으로 이전하였고, 치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연구동, 교육동 등이 교육공간이 형성되었다. 2005년에는 학부에서

특수대학원인 치의학 대학원으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에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치의학 대학원 부속 첨단교육 연구 복합단지가 신축되었다²⁾.

1) 경성치과의학교와 부속병원(1908~1968년. 연건, 소공)

1908년 광제원이 기존의 관림의학교와 적십자병원을 통합하면서 대한의원을 설립하였고 1909년 대한의원의 외래진료부는 치과를 포함한 9개 과로 구성되었다. 치과는 의과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의과대학에서 교육 및 진료가 수행되었다. 치과는 임상을 중심으로 환자의 2차 공간화가 먼저 시작되었으며 치과 기초학문의 1차 공간화는 의과대학에서 임상과 관련된 임상의학 중심이었고 이후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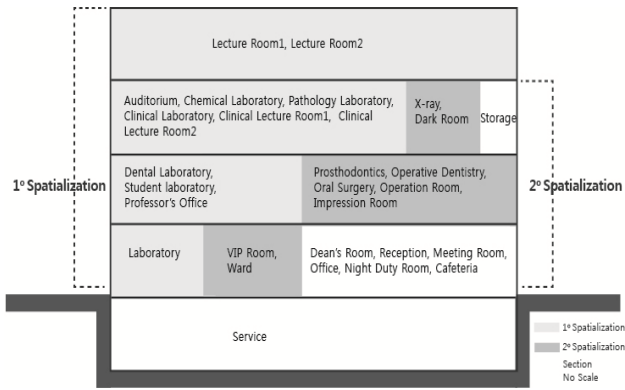


[Figure 1] Plan of Out Patient Clinic of Daehan Hospital in 1909(Plan Diagram of Building)

1922년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되었을 당시 치과 교육은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총독부위원의 건물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28년 국유지를 대여받아 소공동에 독립 학교건물을 마련하여 이전하였고 같은 공간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을 설치하였다(Kee, 1995: 351). 이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1945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병합되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육 내용은 치과기공학, 병리약리학, 병리조직학의 기초치의학과 보존학, 보철학, 구강외과학의 임상치의학으로 나누어진다 (Figure 2, Table 5)³⁾.

2)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2016, "Organization of School of Dentistry", <https://dentistry.snu.ac.kr/intro/organ/organ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3)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https://www.snudh.org/portal/contents.do?menuNo=21040000>.



[Figure 2] Spatializ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in 1928(Section Diagram of Building)

[Table 5] Change of Dental Program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1928	1969	2019
Basic Dentistry	Prosthodontia Pharmacology Pathohistology	Oral Anatomy Oral Physiology Oral Pathology Biochemistry Pharmacology Materials Preventive Dentistry Pharmacology Microbiology Histology Dentistry	Oral Anatomy Oral Physiology Oral Pathology Biochemistry Pharmacology Preventive Dentistry Microbiology Histology Dental Management Biomaterials
Clinical Dentistry	Conservative Dentistry Prosthodontics Oral Surgery	Conservative Dentistry Prosthodontics Oral Surgery Pedodontics Periodontics Oral Radiology Oral Medicine Orthodontics	Conservative Dentistry Prosthodontics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Pedodontics Periodontics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Radiology Oral Medicine Orthodontics Oral Anesthesiology Oral Pat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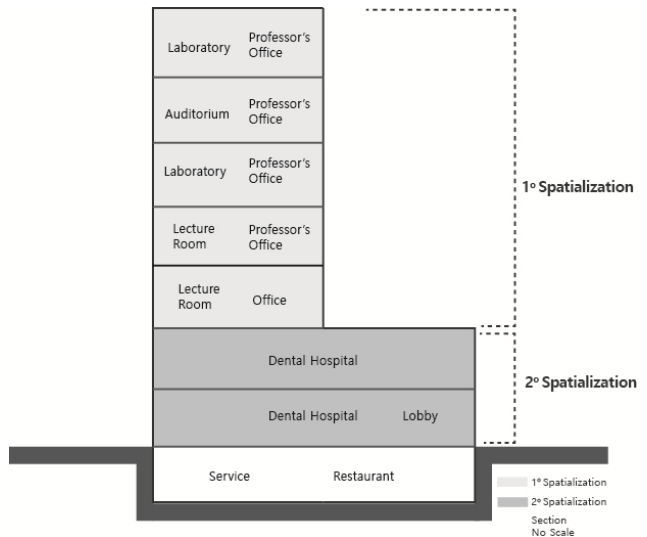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치과진료부인 치과 임상은 다양하게 세분되고 전문화되는 데, 1946년 치과대학 부속병원인 보존부, 보철부, 외과부의 3개 부였으나 이후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방사선과, 구강진단과, 교정과과 신설되었다(Kee, 1995: 356-361). 이와 더불어 치과 교육 분야도 세분화되어 1946년에 구강병리학, 치과재료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이 신설되었고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연건동으로 이전하면서 구강생리학과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이 신설되는 등 빠르게 1차 및 2차 공간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치과 임상의 세분화 및 전문화와 그에 따른 기초치의학의 전적인 학문적 지원으로 한국 치의학의 체계가 정립되었다.

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진료부(1969~1992. 연건)

1969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은 소공동에서 다시 기존 서울대학교 캠퍼스인 연건동으로 이전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대학 등과 연건의학캠퍼스를 구성하게 되었다. 신축한 지상 7층, 지하 1층의 치과대학의 본관 건물은 기단형의 고층 단일건물로 전면부 하층부 1, 2층에는 치과 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진료부가 배치되었고 후면부 3층에서 7층까지는 치과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대학으로 1차 공간화와 2차 공간화가 공존하게 되었다(Figure 3).

기단형의 건물에 기초치의학 교육과 임상 진료가 한 건물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과 임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치의학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학연구소 등 일부 교육공간은 본관 외에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의 다른 건물을 사용하게 되어 치과 질병의 1차 공간화는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Figure 3] Spatializ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in 1970-1980's (Section Diagram of Main Building)

3)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1993~2014. 연건)

1993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기존의 치과대학과 치과진료부에서 독립하여 신축 이전하였다. 그 결과 기초치의학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던 치과대학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고 치과병원은 치과 진료와 치과 임상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다. 신축된 치과병원은 10개 임상진료과목과 임플란트진료센터, 구강악안면기형진료센터, 원스톱협진센터 등 3개의 특수진료센터 등 전문적인 임상 진료의 공간, 즉 2차 공간화의 중심이 되었다.

신축한 치과병원은 기본적으로 치과 임상 2차 공간화의 공간이 중심이며 기존의 수평적으로 분리되었던 임상 공간들이 3층에 치과교정과, 4층에 치주, 보존과, 5층에 보철과, 6층에 구강악안면외과 등 각층에 주요 진료과목들을 배치하고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적층되었다. 7층의 입원병동은 독립공간의 특성상 다른 공간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배치하였다.

치과병원에는 구강검진이나 예방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구강 예방 교육은 치과병원의 소아 치과에서 소아 청소년 치과 진료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예방에 관한 연구는 기초학문인 예방치의학에서 주로 담당한다.

2005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학제개편으로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정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과정의 치의학 전문교육 기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치의학 대학원이 치과생체재료연구동, 교육동 등이 준공되면서 1차 공간화는 본관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이로써 한국 치과 질병의 1차 공간화는 치과 임상을 통한 2차 공간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질병 분류 체계에서 발전하여 생체재료 및 치아복제의 영역으로까지 넓혀졌다.

4) 서울대학교 관악연구복합단지과 관악치과병원 (2015~현재. 관악)

연건캠퍼스 확장의 한계를 분원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건동의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의 분원 형태로 관악캠퍼스의 공간은 단일건물의 내부공간에 1차, 2차 공간화가 공존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의 질병의 공간화 과정을 정리하면, 의과 병원 내 2차 공간화로 시작하여 의과 분야에서 독립하여 1차와 2차 질병의 공간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1차와 2차 공간화가 한 건물에서 진행되다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었고 3차 질병의 공간화는 1차와 2차 공간화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존과 다른 공간에 1차와 2차 질병의 공간화가 나타나서 공간화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Table 6] Spatialization of Diseas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Daehan Hospital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School of Dentistry/Dental Hospital	R&D Center and Dental Hospital
Year	1909	1928	1969	1993	2015
Location	Yeongun Campus	Sogong Campus	Yeongun Campus	Yeongun Campus	Gwanak Campus
Spatialization	The Secondary Spatialization	The Primary, Secondary Spatialization	The Primary, Secondary Spatialization	The Primary, Secondary, Tertiary Spatialization	The Primary, Secondary Spatialization
Spatial Configuration	Integrated Spatial Configuration	Integrated Spatial Configuration	Divided Spatial Configuration (Upper-School of Dentistry Lower-Dental Hospital)	Separated Spatial Configuration (School of Dentistry/ Dental Hospital)	Divided Spatial Configuration (Right side-School of Dentistry Left side-Dental Hospital)
Spatial Characteristics	Dental Space in the Medical Hospital	Mixed Programs in a Building	L-shaped Building, Vertically Separation	Multiple Building Complex	Horizontally Separation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4. Analysis of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 and Spatial Composition in Korea

4.1 Relationship between Spatialization of Disease and Spatial Composition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 사례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치과 질병의 공간화 공간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치과 질병의 공간화는 두 갈래로 진행된 근대 치과의 도입과정과 관계가 있다. 1890년대 서양 선교사에 의해 치과 임상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되어 세브란스병원의 치과학 교실로 발전하였고, 다른 한 방법은 일본을 거친 서양 치과의 도입으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경성치과의학교와 임상병원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서양 의학의 직접적인 도입은 서양 선교사에 의한 치과 임상, 즉 치과 진료가 주목적이었으며 교육도 그에 따른 임상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푸코의 질병의 공간화 과정 중 2차 공간화에 해당하는 것이다(Table 7).

[Table 7]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Primary Spatialization	Secondary Spatialization	Tertiary Spatialization
Research & Education	Dental Clinic	Public Health
Fundamental	Dental Treatment & Operation	Health Policy
1922 Kyung Sung School of Dentistry	1909 Daehan Hospital	1966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Dental Hospital	Spaces in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Independent Space	Independent Space	Dependent Space

Note: The table above was built up from the author

서양 치의학은 한국에 도입될 당시 질병의 1, 2, 3차 공간화가 정립된 상태이었으나 한국에서 치과 질병의 공간화는 1890년 2차 공간화가 먼저 시작되었다. 이후 1922년 일본인에 의한 치과 교육의 1차 공간화의 과정이 발생하였다. 초기 대한의원 시절 치과는 임상을 중심으로 대한의원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였고 치의학 교육은 의과대학 내에서 이루어졌다. 1928년 경성치의전문학교 이후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독립하여 자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본격적인 2차 및 1차 공간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임상을 중심으로 2차 공간화가 나타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1차 공간화가 2차 공간화와 같은 공간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공간구성이 형성되며 이후 3차 공간화의 공간도 나타나게 된다. 같은 공간의 1차와 2차 공간화는 점차 분화하면서 독립하게 되고 이러한 분화의 단계를 지나면 공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분원의 형태로 1차와 2차 질병의 공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Figure 4).

개인과 환자의 몸과 연관이 있는 1차와 2차 질병의 공간화와 다르게 3차 공간화 과정은 사회 문화적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구강검진이 주였으며 이는 한국 내 불안정한 사회 상황상 정부보다는 전문가인 치과의사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3차 공간화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학교체계를 이용하였으므로 치과병원 내 질병의 3차 공간화에 관련된 전문적인 독립공간은 마련되지 않았다. 대신 공공의료사업, 보건정책연구개발, 치과 예방학을 통한 구강 사업 정책연구와 치과의원과 학교의 구강검진 등 1차와 2차 공간화 시스템을 이용한 3차 공간화가 진행되었다. 현재 건축공간구성의 관점에서 치과 질병의 3차 공간화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단계이며, 추후 치과의사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적극적인 구강 정책의 실현을 통한 3차 공간화로 독립된 전문공간이 나타날 것이다.

5. Con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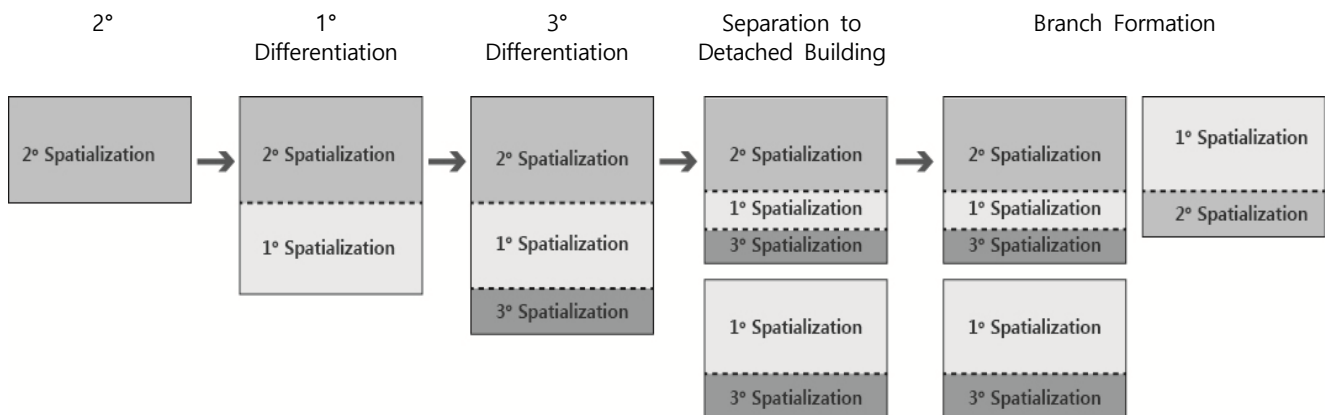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치과 진료체계와 치과 질병의 인식변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영향과 건축 공간구성의 변화과정을 통한 질병의 공간화와 분석 사례로 한국 치과 분야의 질병의 공간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치과 질병의 공간화는 의과 분야 질병의 공간화와 유사하나, 치과 질병은 외부환경요인의 산물이며 질병의 1차 공간화인 기초치의학 교육공간, 임상 진료공간인 2차 공간화보다는 개인위생에서 중요한 측면인 구강검진 및 구강 교육 등 3차 공간화인 공중보건의 강조된다.

2) 한국 치과 질병의 공간화는 임상 진료인 2차 공간화와 기초치의학 교육인 1차 공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양인에 의한 임상 진료의 2차 공간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1차 공간화인 치의학 교육과 기초학문의 발전은 일본인에 의한 치의학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시대적 전개 과정이 명확한 서양과는 다르게 2차, 1차, 3차 공간화의 순서로 시대적 큰 간격 없이 나타났다.

3)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 사례 분석 결과 한국 치과 질병의 공간화는 2차와 1차 공간화가 정립되면서 독립된 공간으로 형성되고 분원의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공간인 3차 공간화는 독립공간이 아닌 1차, 2차 공간에 부분적으로 나타났고 추후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1900년대 초 한국 치의학의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치과 공간인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모든 지역 치과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내 치의학은 120여 년의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했으므로 치과 임상, 기초 교육, 공공 영역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한 각 공간화의 정립 및 서로의 영향력과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Figure 4] Diagram of Spatialization of Dental Diseas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Dental Hospital

References

- Davis, Peter. 1980, *The Social Context of Dentistry*, London, Croom Helm, *Social Dentistry Research Institute (Translation)*, 1994, Seoul, Hanul Publishing Co.
- Foucault, Michell, Paul.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Han, Jinkyu; Lee, Teukkoo. 2005, A Study on the Developing Processes of Hospital Architecture in Korea,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11, pp. 55-67.
- Huh, Kyung. 2012, Changes in 'Modern' discourse on Clinic and Life: on Michel Foucault's *naissance de la clinique*, *Journal of Institute of Studies for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e and Thoughts*, 23, pp. 23-68.
- Kee, Changduk. 1995, *A History of Korean Dentistry*, Seoul, Academy'a.
- Lee, Jongchan. 1994,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storical Approaches to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linical Medicine,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3(2), pp. 202-217.
- Lee, Jueyeon. 2006,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Dental System*, Seoul, Hyeon.
- Lee, Mingoo; Hong, Seyeon. 2015, Foucault's Spatialization of Disease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hilosophy of Medicine*, 20(12), pp. 65-85.
- Lee, S., Choi, Y. 2000, Study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pace along with the Procedure of Medicine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 Hospital after the 18th Century,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 pp. 285-288.
- Nettleton, Sara. 1992, *Power, Pain and Dentistr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Korean Dental Association(Translation)*, 2000, Seoul, Hanul Publishing Co.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https://www.snudh.org/portal/contents.do?menuNo=21040000>. 2019.07.11.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2016, "Organization of School of Dentistry", <https://dentistry.snu.ac.kr/intro/organ/organ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07.11.
- Sheridan, A.M. 2003, *The Birth of the Clinic*, London, Routledge.
- Shin, Jaeui. 2004, *A History of Korean Modern Dentistry*, Seoul, Charmyun Publishing Co.
- Yu, Youngmin. 1991, A Study on the Transitional Process of Hospital Architecture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7(1), pp. 199-206.

접수 : 2019년 07월 15일
1차 심사완료 : 2019년 08월 09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08월 09일
3인 익명 심사 필